

승실 인문학 연구 회고와 과제

김 문 경*

차 례

- I. 인문학 연구의 회고
- II. 인문학 연구의 과제

I. 인문학 연구의 회고

인문과학 연구소가 설립된 해는 1966년 3월이다. 설립당시에는 사회과학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그래서 연구소 편제에 인문과학연구부와 사회과학연구부를 두고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논문집』을 발간하고, 연구발표회와 강연회도 가졌다. 1967년 10월 10일, 본교창립 70주년의 기념호로 『논문집』 제1집이 간행된 이래 2003년 현재 제33집까지 발간되었다.

수록된 논문은 대략 430여 편에 이른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과학(1982년 설립)과 자연과학계(생산기술연구소 1968년 설립 75년 논문집 발간)의 논문도 게재되어있다. 초기 『논문집』의 사정은 이리했다. 논문의 내용도 학교 안팎의 사정변화에 따라 바뀌어 지기도 했다.

연구소 설립초기에는 건학이념에 따라 기독교 연구의 논문과 발표회도 활발했다. 74년 10월 10일 개교 77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의 하나로 연속 학

* 승실대 명예교수

술 강연을 가졌다. “한국의 근대화와 기독교”라는 대주제 아래, 개교 80주년을 맞이하는 77년까지 연차적으로 3회에 걸쳐 강연회를 개최한 것이 그 좋은 예가 되겠다.(제1회 : 한국의 전통사회와 기독교의 수용, 제2회 : 한국의 기독교와 민주주의, 제3회 : 기독교와 사회의식)

80년대에 오면 연구 활동도 활발해지고 발표논문의 편수도 많아진다. 「교수 승진평가제」와도 관계가 있었는데는 모르겠다. 그리고 연구의 관심도 그 범위를 넓혀갔다. 일본, 중국에서의 옛 우리나라 사람들의 활동상에 관한 연구도 그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88년 공동연구과제로 “18세기 일본 체험과 한일문학의 교류 양상”과 90년에 개최된 “한·중·일 국제 학술회의”에는 “한국학 연구의 새 좌표” 등이 연구 발표되었던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과장을 92년 중국과의 국교가 정상화 되면서부터 더욱 활발해졌다. 주로 우리대학과 인연이 있었던 중국의 대학과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현지답사가 이루어졌다. 이 활동에는 ‘대성산업’이 제공한 연구비가 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국제학술회의(93년)도 개최되어 바깥세계의 연구가 활발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90년대의 특기할만한 일은 『논문집』에 외국어 논문이 많이 게재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2000년대에 와서는 ‘인문학의 위기’가 자주 거론되어서 그런지 인문과학 연구소에서도 30수년간 지켜오던 「논문집」 인문과학편이란 표지를, 2001년 제31집부터는 『인문학연구』 숭실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라고 바꾸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잘 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면서 2002년에는 특집으로 “인문학과 지식인”이란 주제로 쟁쟁한 교수들이 인문학연구에 오기를 내고 있다. 그런데 제33집에는 기획주제로 “인문학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란 연구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간략한 회고의 글을 바탕으로 숭실 인문학연구의 과제 몇 가지를 제언해 보고자 한다.

II. 인문학 연구의 과제

인류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인문주의 ‘인문학의 위기’는 그 때 그 나라의 사회 상황 속에서 때때로 있어 왔다. 그것은 과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바깥세계와의 학문·사상의 교류를 통해서도 야기되어 왔다. 그러나 선학(先學)들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해 갔을 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올려놓곤 하였다.

종래의 인문학연구자들은 그들의 학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의상 나름대로의 시대구분과 지역구분을 해 왔다. 특히 역사학 연구자들은 시대구분에서는 고대·중세·근세로 구분해 왔고, 지역구분에서는 전통적으로 정확하지도, 명료하지도 않은 동양과 서양이란 말로 구분해 왔다. 이리다 보니 서아세아나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세아의 사람과 학문과 사상·종교에 대한 관심은 물론, 그 연구가 소홀해졌고, 그 결과는 상호간의 이해부족으로 반목이 야기되어 왔다. 오늘날 온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일들은 서아세아 세계, 곧 이슬람 세계의 연구부족이 가지고 온 결과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인류 역사발전 단계를 보아도 페르시아·이슬람 세계가 제일 먼저 일어나며, 그 다음이 동양이고 서양은 제일 뒤져 있었다.

7세기 아랍사람들의 페르시아 정복은 근세적 특징을 띤 종교개혁으로 나타났고, 이어 문예부흥이 뒤 따랐다. 즉 바그다드에 도읍한 압바스(Abbasids) 왕조(750~1258) 차하에서 페르시아 문화와 회람의 고전이 부흥되었고, 8~9세기는 그의 황금시대였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는 이미 근세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수세기에 걸친 십자군전쟁을 겪으면서 중세사회에서 점차로 눈을 떠 14~15세기에 이르러서야 문예부흥의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다. 이를 우리들은 서양근세사의 개막이라 이야기한다. 페르시아·이슬람세계와 비교해 보면 수세기의 시차가 있다.

동양의 역사에서 문예부흥과 유사한 사실을 찾는다면 11세기를 중심으로 한 북송(北宋, 960~1279)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동양의 근세적 사회문화의 변동은 페르시아·이슬람세계보다는 2세기 정도 뒤지고 서

양과 비교하면 3세기 정도 앞서 있었다고 보아진다.

원래 문예부흥이란 어휘는 서양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말이다. 그래서 이 말을 페르시아·이슬람사 또는 동양사에 응용하려고 하면 무리가 뒤따를 수 있다. 그러나 서양의 문예부흥과 공통된 현상을 동양사에서 구한다면 대개 다음과 같은 현상을 예 들 수 있겠다.

철학 : 문예부흥운동의 중심사상은 고전적 황금시대를 회고하는 복고사상이다. 서양에서는 처음 로마에로의 복고에서 희랍고전문화의 부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목표는 중세가 아니고 고대였다. 동양에서는 북송의 중기에 유학의 부흥, 곧 송학(宋學)의 기초가 마련된다. 이보다 한 시대 앞서 사회를 풍미한 불교·노장사상에 대한 유교에로의 복고였고, 한당(漢唐)이래의 전통적 훈고학에 대한 옛 성현의 참 사상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였다.

문장양식 : 이태리 문예부흥기의 사상을 표현한 언어는 대립적인 두 양식이 보인다고 한다. 토스카나 방언에 의한 표현과 복고주의 입장에서 순수한 고대 라틴어를 사용한 표현방법이었다고 한다. 물론 후자의 것이 영원한 생명을 이어갔다고 생각하고 있다.

동양에서도 사상의 변혁기에 문학표현의 형식은 고문(古文)부흥의 재창이었다. 당(唐)대의 한유(韓愈, 768~824), 유종원(柳宗元, 773~819)의 고문운동에서 그 본을 찾는다.

과학의 발달 : 사상 문장의 보급수단은 인쇄술의 발달을 가져왔다. 이태리에서의 활판인쇄는 1465년에 시작된다고 한다. 동양에서의 목판인쇄의 기원은 매우 오래되지만 대개 당대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양의 활판인쇄술의 발명이 15세기 중엽이란 사실과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동양의 선진성을 알 수 있다.

자연과학의 발달은 인간 사상에 자극을 준다. 옛 것을 버리고 새

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추진력이 곧 그것이다. 동·서양의 문예부흥은 북고운동인 동시에 진보주의다. 이 당시의 과학을 대표한 발명품은 나침반과 화약이고, 동양에서의 화약에 관한 이야기는 북송 인종(1041~1048) 때 등장한다. 서양의 그것은 대개 13세기에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침반도 북송시대에 이미 항해에 사용되고 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문주의·인문학의 위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북고 운동이 일어났고, 그 바탕에서 더 높은 새로운 것으로 지향해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페르시아·이슬람세계가 동·서양에 대하여 어떠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연구되어 있지도 않다. 그리고 특히 동양의 문예부흥의 어떤 부분이 페르시아 이슬람세계의 영향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 또한 연구가 부족하여 불분명하다.

육조시대(六朝時代, 317~589)이래 육로를 통한 많은 페르시아 상인의 중국왕래, 그리고 당 중기 해상을 통한 다수의 아랍상인들의 중국왕래와 이주, 그리고 해상무역활동은 페르시아·이슬람세계가 동양에 끼친 영향을 결코 가벼이 생각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삼국사기(三國史記) 등에 기록된 그 많은 이슬람 상품명과, 경주 계룡의 페르시아 무인상, 울산 앞바다의 처용암 설화 등은 이슬람문화가 우리와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위에서 보아온 몇 가지 사실에서 우리 인문학 연구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첫째 이슬람세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생각된다. 둘째는 문예부흥기의 북고운동과 같이 고전연구는 인문학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과제라 생각된다. 야스퍼스는 현대의 특징을 불안·고통·절망의 시대라고 했다. 이러한 시대를 살리는 길은 인간의 참 마음을 찾아내어 살리는 일이다. 우리 정신을 일깨워주는 화두는 고전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 문학, 역사, 철학의 고전은 물론이고 할 수만 있다면 회교, 불교, 도교의 경전도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면 한다. 불교의 선종도 불교북고운동의 한 흐름에서 일어난 개혁종파이다.

우리는 고전의 연구를 통해서 새롭고 현실에 맞는 가치의 창출과 이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의 바탕이 이루어지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Abstract】

Retrospect and Prospect of Soongsil Humanities

Kim, Mun- Gyung

The institute of humanities was established in March 1966. Since the first collections of thesis was published on October 10, 1967, 33 issues of thesis collections had been published until 2003. The total numbers of the articles reached to 430 volumes.

Following Soongsil University's Christian ideology, large proportions of articles were about the study of Christianity. In 1980s, the research activities were conducted more vigorously by many of scholars, and it also helped to broaden the range of research subjects. For example, old Korean's role and activities in Japan and China was emerged as one of new research subject

When Korea established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China in 1992, studying of the new subjects, which was mentioned previously, became a lot easier and more active. Collaborated with Chinese university, the research and exploring historic scene were also conducted around Yien-ben area. In addition to that,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was held, which ignited more vigorous research activities on the study of the humanities.

In 2000s, the term of 'The Crisis of humanities' was often mentioned by the intelligentsia. Special issue of 'The study of humanities and intelligent' was published in 2002 influenced by the academic tendency. Also, 'How to educate the humanities?' was published on the 33rd issue of thesis collection.

Based on the previous retrospect, I would like to propose a couple of

subjects for study of Soongsil humanities research.

The crisis of the humanities always has been existed with the changes of society and the human history through out the world. However, many scholars in the past overcame the crisis wisely and they even brought the level of the humanities study up one step higher.

Regardless of the Eastern and Western, the revival of literacy had been took place when the period of humanism and humanities crisis occurred. Hence, the study of classics cannot be ignored and should be doing an important role in the field of humanities study. Searching for the 'true spirit of human' and bring it back to life is the way to survive the critical era. In addition to that, the study of Southeast Asia, central Asia and Islamic world need to be conducted as well.

The misunderstanding between the two worlds caused negligence of the study of global world. (Eastern and Western) Such negligence created antagonism between the two worlds. The study of classics, including human, academic research, ideology and religion, is essential to create new values that fits into the modern society, and we need to take the initiative.

Key Words : Renaissance, study of Classics, the Crisis of Humanities, Islamic World